

1900~1910년의 인문학 양상과 발전



글_성일권정치학 박사

인문학이 위기다. 출판사들마다 독자들의 알뜰한 입맛에 맞는 처세술과 재테크 관련 책들에만 관심을 쏟는 바람에 우리 사회의 지적 인프라를 살찌울 인문학이 급격한 퇴조를 맞고 있다. <출판저널>은 인문학의 역사를 짚어보고, 인문학의 새로운 의미를 전착키 위해 특집 시리즈를 마련했다. 파리8대학 등에서 이 분야에 오랜 기간 연구를 거듭해온 성일권 박사의 기고를 통해 근대 인문학 태동기인 1900년부터 10년 단위로 그 뿌리를 더듬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식민지 쟁탈전-하러 미국-일본-구소련이 있다

19c 제국주의적 기세와 함께 등장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 대량생산, 노동 분업 등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의 변화를 초래하며, 대중과 군중의 시대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이 무렵 지식인들과 중산층 사이에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삶의 양식이 중시되기 시작했다. 페르디난드 토니(Ferdinand Tonnies) 같은 이들은 이 새로운 삶의 양식을 공동체에서 사회로의 이행으로 규정하고, 에밀 뒤르카임(Emile Durkheim) 같은 이들은 모럴 종교 등 무의식적 연대로부터 사회 그룹에 대한 개인들의 입장과 관련된 유기적 연대로의 이행, 또는 전통에서 합리성으로의 이행이라고 말했다.

1905년 앨버트 아인슈타인이 그의 첫 상대성이론을 창안했으며, 같은 해 그는 빛이 작은 알갱이로 이뤄졌다는 이른바 광자(光子)의 가정을 세웠다. 막스 플랑크(Max Plank)는 이를 토대로 1900년 창안한 양자(量子)이론을 발전시켜 현대 물리학의 혁명을 이뤄냈다. 또한 마티스(Matisse), 고갱(Gauguin), 고흐(Gogh), 뒤피(Dufy) 등으로 대표되는 포비즘(fauvism)이 화려한 색깔을 즐겨 사용했다면, 파카소(Picasso)가 1907년 '아비뇰의 아가씨들'로 첫선을 보인 큐비즘은 기존 미술의 전통적 기법을 깨뜨렸다. 큐비즘은 그림의 동작과 형태의 해체를 가져왔고, 예술이 새로운 '추상의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창안하다

이같은 대중과 군중의 시대와 개인의 삶의 양식이 충돌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190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44세의 프로이드라는 의사에 의해 씌어진 <꿈의 과학>(1900)이라는 야심만만한 제목의 책이 출간된다. 이 저작은 꿈의 심오한 의미라는 인간의 정신현상에 대한 어려운 질문에 답을 제시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은 우리들의 숨겨진 심리 영역, 즉 무의식과 맞닿아 있는 관문이다. 꿈은 정신착란증세 같기도 하고, 일관성도 없어 보이지만, 어떤 숨겨진 의미를 전달한다. 꿈속에 담긴 내용은 의식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강렬한 욕망의 표현이다. "모든 꿈은 욕망의 추구로 발현된다." 이 욕망은 종종 근친상간이나 성(性)적인 욕구이다. 바로 이 점에서 터부시되는 욕망이 심리학적 저항을 부추긴다. 의학을 공부한 뒤 프로이드는 1873년 빈 의과대학에서 생리학을 전공했으며, 1876년 신경학에 관심을 갖고 이후 15년 간이나 신경학자로서 연구에 전념하였다. 1885~1886년에, 그는 히스테리 분야의 권위자 마탱 샤르코(Martin Charcot)가 활동한 파리의 살페트리에르 연구소에 유학을 다녀온다. 빈에 돌아온 프로이드는 정신과 병원을 개업한다. 그가 새로운 정신이론을 고안하기 시작한 것은 심리학자 히폴리트 베른하임(Hippolyte Bernheim)이 강연한 프랑스 낭시 지방의 여행을 통해서다.

"나는 그 곳에서 인간 의식에 숨겨진 정신 과정의 가능성과 관련해 아주 강렬한 인



●이 글을 쓴 성일권은

파리3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파리8대학에서 정치학 예비박사(DEA)를 마친 뒤 유럽자본주의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번역서로 <그들 안의 오리엔탈리즘> <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 <진보와 그 적들> <자본주의의 새로운 신화들> 등이 있다.

상을 받았다.”

무의식, 리비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 중요 개념 정리

1895년, 그는 조지프 브뤼어(Joseph Breuer)와 함께 《히스테리에 관한 연구》라는 저서를 펴냈다. 이 책에서 프로이드는 브뤼어가 치료했던 안나 오(Anna O)라는 젊은 여성의 히스테리 증세를 아버지를 향한 근친상간적 욕망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안나를 만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당시 브뤼어가 안나에 대해 실행한 대화 치료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라 할 만했다. 그러나 브뤼어가 자신의 이런 연구 성과를 공유하지 않음에 따라 두 사람은 결국 곧 갈라지게 됐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자신이 더 이상 포기하지 못할 길에 뛰어든다. 몇 년의 연구를 통해, 그는 ‘정신분석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했다(정신분석학은 1896년 그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무의식, 리비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자유연상의 기술, 유년기의 성(性), 방어 기제 등이 그것이다.

프로이드가 언급한 무의식의 개념은 전적으로 독창적인 것이 아니었다. 아더 쇼펜하우어나(Arthur Schopenhauer)나 에두아르트 폰 하트만(Edouard von Hartmann) 같은 철학자들은 이미 오래 전에 ‘무의식’의 개념을 자신들의 철학에 응용하기까지 했다. 피에르 자넷(Pierre Janet, 1859~1947)은 극복할 수 없는 외상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다중인격장애라는 정신분석학의 개념을 발전시킨다.

그러나 무의식 개념의 진정한 창안자는 독일 심리학자 테오도르 리프스(Theodor Lipps, 1851~1914)다. 그는 무의식이 과거의 전체적인 표상 행위들로 이뤄졌으며, 항상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데도 나 자신 안에서 그것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분석학의 확장 - 빈 정신분석학회 태동

《꿈의 해석》의 출간은 프로이드에게 황금기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몇 년 동안 다음과 같은 책들을 쓰고 출간했다. 《일상 생활의 병리》(1901), 《정신의 언어와 정신의 무의식과의 관계》(1905), 《성(性)의 이론에 관한 세 가지 논문》(1905) 등이 그것이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빈에서 호의적인 환영을 받았다. 유년의 성(性)이라는 주제는 아더 슈니츨러(Arthur Schnitzler)의 문학과 칼 크라우스(Karl Kraus)의 <디 파켈>(Die Fackel) 같은 잡지들 속에서 자주 언급되었으며, 성의 병리학에 관한 연구는 특히 마조키즘과 소아에 개념을 정립한 리하르트 크라프트-에빙(Richard Krafft-Ebing)의 《Psychopathia Sexualis》(1886)에서도 많이 다뤄졌다.

프로이드의 주장들은 빠르게 확산됐으며, 격렬한 논쟁의 불씨를 지피곤 했다. 몇 년 뒤, 그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된다. 많은 환자들이 그의 병원을 찾아온다. 프로이드는 자신의 병원에 긴 의자를 놓고서 환자들을 눕게 한 뒤 의식과 무의식의 흐름을 자유롭게 말하게 했다. 또한 프로이드는 자신의 학파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1902년부터 그는 매주 수요일 저녁 자신의 병원에서 정신분석학에 관심이 일단의 많은 의사와 지식인 그룹과 교분을 나누었다. 열등 콤플렉스개념으로 유명한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 1870~1937)는 바로 이 그룹의 출신이었다.

이 그룹은 1908년 ‘빈 정신분석학회’로 발전한다. 1907년 3월, 스위스출신의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 1875~1961)과 루드위그 빈스방어(Ludwig Binswanger)가 프로이드에 합류한다. 그룹 회원들은 국제적 운동의 토대가 될 새로운 정신의학그룹을 형성한다. 1908년, 정신의학 최초의 국제회의가 찰스부르크에서 개최된다. 그 이듬해, 정신분석학회지의 창간호가 발행된다. 프로이드는 이 무렵 미국에 초대돼 자신의 이론을 발표한다. 1911년 아들러가 프로이드에 의한 성 충동에 대한 중시를 비판하면서 프로이드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개인 심리학회’를 창설한다. 그는 프로이드의 무의식 이론을 평가하면서도 성 충동이 인간 동기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프로이드의 견해를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아들러는 개인의 주요 동기는 열등 콤플렉스의 극복의지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융도 1913년 자신의 학파를 설립하기 위해 떨어져나간다. 스위스 바젤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그는 처음에는 프로이드 학설에 접해 한때 프로이드파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프로이드의 초기 학설인 성욕 중심설의 부적절함을 비판하여 독자적으로 집단적 무의식 세계를 탐구해 분석심리학설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신화와 종교에 관심이 많은 그는 집단적 무의식이 용, 물, 불, 부친, 또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거대한 특징적 형태와 같은 원형들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칼 아브라함(Karl Abraham, 1877~1926), 어니스트 존스(Ernest Jones, 1879~1958), 오토 랑크(Otto Rank, 1877~1939), 샌더 페렌치(Sandor Ferenczi, 1873~1933)와 같은 새로운 제자들이 프로이드의 사상을 변호하였다. 이들에 의해 프로이드의 사상은 초현실주의, 맑시즘, 현상학, 문화인류학 등과 혼합돼 다양한 새 이론들을 생산해냈다. 그리하여 정신의학은 1920년대부터 인문과학의 핵심이론으로서 각광 받으며 발전하게 된다. [4]